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783호 The Seungni Shinmun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동식물도 마음이 있을까

동식물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더욱이 요즘처럼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가족처럼 키우는 세대들이 많은 시점이라 더욱 궁금해진다. 과학자들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데 동식물이 마음이 있는지 알아보자.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식물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크리브 백스터(Cleve Backster)

동물과 식물의 다른 점

동물과 식물의 다른 점은 이동성에 있다. 즉 동물은 움직일 수 있지만 식물은 땅에 고착되어 고정된 자리에서 생활한다. 또한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 수 있는 반면 동물은 식물 또는 다른 동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동물과 식물의 감정의 유무를 들기도 한다. 즉 동물은 감정이 있지만 식물은 감정이 없다는 것이다.

식물도 마음이 있다?

그러나 최근 식물도 마음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KBS는 1985년에 〈보리새우에 대한 나무의 반응〉에 관한 실험을 방영하였다. 한상영 편저 『영생학』에 소개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본다.

물컵에 살아 있는 보리새우를 넣고 꽃나무 곁에 얼마 동안을 놓아 두었다. 꽃나무에는 심전도계(心電度計)를 설치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살아 있는 보리새우가 끓는 물 속으로 들어가 죽게끔 하는 장치를 했다. 물론 방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심전도계만이 나무의 반응을 체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여러 가지 기계장치들은 소음이나 바람 등 어떤 것도 충격을 줄 만한 것이 없도록 했다.

시간이 되어 살아있는 보리새우가 끓는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죽게 되자, 그 동안 별다른 진동 없이 평온을 유지하던 꽃나무가 갑자기 경악스러운 진동을 했다. 사람의 반응과 너무나 흡사한 반응이 꽃나무에게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보리새우와 꽃나무 사이에 감정의 교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1986. 3월 KBS-3TV 보도)

또 다른 연구로서 식물도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빛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대응한다는 학설이 나왔다. BBC는 2010. 7.14일 인터넷판에서 식물도 지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도했다.

폴란드 바르샤바 생명대학의 스타니슬라우 카르핀스키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프라하에서 열린 실험생물학회 연례 총회에서 식물들이 빛의 강도와 질을 잎에서 잎으로 전달하는 메카니즘은 인간의 신경조직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한 잎이 빛을 흡수하면서 생성된 '전기-화학 신호'는 식물에서 신경조직 역할을 하는 세포들에 의해 전달되어 식물 전체가 반응을 한다고 카르핀스키 교수 팀은 설명했다. 그리고 잎에서 빛을 받으면서 시작된 화학작용은 주위가 어두워진 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근거로 식물이 빛에 숨겨져 있는 암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크리스틴 포이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우리 사고를 일보 전진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식물도 가뭄, 혹한 등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생존해야 하는 만큼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지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라고 말했다.(The Science Times 참조)

동물은 감정은 있지만 인간 특유의 마음은 없다

앞의 연구결과들처럼 식물도 마음이 있고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식물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한다. 동물은 감정이 있는 반면 식물은 감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과 동물은 감정은 있지만 사람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동물은 마음이 없다. 즉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그림과 문자로 자신이 구상하는 일을 청중들에게 발표를 하고, 자신의 하루 일과를 일기로 쓰며, 더 나아가 문명을 발달시켜 오늘날에 이르게 한 것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 덕분이다. 하지만 동물은 아무리 지능이 높은 침팬지라고 해도 구상하는 일을 발표하고, 일기를 쓰며,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다. 동물은 사람처럼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마음이 없다고 하겠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왔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의 말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맹수에 비해 약한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하는 능력, 즉 마음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왜 사람만 식물이나 동물과 확연히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을까. 승리제단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은 사람이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세밀하게 논해보면 이렇다.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의 세계는 영의 세계였다.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병존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 순간 하나님이 현재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마음은 영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면 마음도 사라진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이므로 죽은 사람의 영이 살아 있다거나 천국 또는 지옥에 갔다는 말은 잘못된 이론이다.

동식물은 감정은 있지만 인간 특유의 생각은 없다고 하겠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58〉

"죄 자체가 바로 마귀"

성경에는 죗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죗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죗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하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갔다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죗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죽으면 지옥 갔다가 되는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죄를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이요 죄를 해결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구세주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망은 죗값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고로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려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고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죄 자체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노년에 대한 준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람이 미래에 닥칠 우환이나 불행을 미리 예방한다는 것은 대단히 뛰어난 선견지명을 지녔다고 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그냥 넋 놓고 맞이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말년에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 소외감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 했습니다. 다가올 환란과 같은 노년의 삶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하루라도 빨리 젊고 건강할 때, 미리미리 고령에 대해 준비해 두면 이보다 최상일 순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빠르다는 세상 말처럼, 그것을 인식하고 마음이 꽂힐 때 즉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문제가 앞 호에서도 강조했듯이 너무 급격하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닥쳤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에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현재 처해진 입장에서 대안을 찾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고로 사통팔달의 열린 마음과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가 나이가 들고 몸이 노쇠해져 갈 즈음해서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 없다는 속담처럼 한 때의 젊음과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고 진짜 중요한 노년의 긴 삶(시대의 변화)을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날의 절실한 노인문제는 이른바 '노인의 5고(五苦)'라 하여, 노인의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목적의식 부재, 노인의 경제적 빈곤, 노인의 보건 · 의료문제, 노인의 무위(無爲) · 무료(無聊), 노인의 사회적 소외 등을 들고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 부재로 노인문제 발생

현재, 노인의 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분석과 대책을 살펴보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인을 하나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고픈 지적 사안을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목적의식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높고 근사한 빌딩을 짓기 위해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래 위에 화려한 성을 높이 쌓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듯이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목적의식이 없이는 결코, 노년의 행복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다음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기자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족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4월 29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맡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출범식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공익에 기여하는 생을 살아온 제가 다시금 범국가적인 과업을 완수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며 "내 남은 인생을 기꺼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방안을 우선 찾을 계획이라고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발족식에 참가한 환경문제 전문가 김광훈 샤론숲물공기환경연합(연) 소장은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심각성을 알고 정부가 대책회의를 발족시킨 것을 환영한다. 현 기술로서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사료되지만 설치 비용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산업계가 수용할 태세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렴한 비용의 저감장치 개발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광훈 샤론숲물공기환경연합소장 제공

또한 "환경호르몬, 유해금속, 유해화학성분이 가미되고, 더나아가 인수공통감염 가능성이 있는 변형바이러스까지 미세먼지에 묻어 날아다니면 매우 심각한 재앙 초래할 수 있다"고 염려하며 "선각자들이 괴질 발생을 우려했고, 그 대책 또한 발표하였으나 국민적 관심이 매우 적은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우측 광선)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우측 광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

4지역 6개월 만에 1등

개인 1등 박순희 권사

4지역 이영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5월 7일 화요일 구역장 회의에서는 4월 성적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2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3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구역 1등: 33구역(구역장: 박순희)
2등: 39구역(구역장: 박명하)
3등: 31구역(구역장: 박옥례)
*개인 1등: 박순희 권사
2등: 박명하 승사
3등: 신동식 승사 *